



부상 등으로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안치홍·김희걸·한승혁·신종길·김원섭·채종범·이용규(왼쪽부터) 등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7일 광주박목관 뒷산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김비오·강성훈 꿈의 무대 PGA로

'지옥의 퀴리파임' 통과

김비오(20·넥슨)와 강성훈(23·신한금융그룹)이 꿈의 무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1년 출전권을 따냈다.

김비오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윈터가든의 오렌지카운티 내셔널 골프장 크룩트캐트코스(파72·7277야드)에서 열린 퀴리파임스쿨 최종전 마지막날 3타를 잃고 다소 흔들렸지만 함께 12언더파 417타를 적어냈다.

김비오는 옛새간 펼쳐진 '지옥의 레이스'에서 공동 11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 공동 25위까지 주어지는 PGA 투어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강성훈도 마지막날 1타를 줄여 함께 11언더파 418타를 적어내며 공동 16위에 올라 김비오와 함께 PGA 투어 멤버가 됐다.

이에 따라 2011년 PGA 투어에서는 통산 7승을 올린 최경주(40),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8), 위창수(38·테일러



〈김비오〉 〈강성훈〉

메이드)와 함께 한국국적을 가진 선수 5명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국가대표 출신 김비오는 지난 8월 한국프로골프(KPGA) SBS투어 조니워커오픈에서 프로선수로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정상에 오른 것을 비롯해 올 시즌 신인왕과 발렌타인대상, 최저타수상을 차지한 유망주다.

특히 강성훈은 지난 4월 유진투자증권오픈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연합뉴스

그래도 신지애, 세계 1위 시즌 마감

'골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2010 시즌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지애는 7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프로골프 톨렉스 세계 랭킹에서 1위를 지켰다. 6주째 선수를 고수한 신지애는 올해 남은 큰 대회가 없어 2010년 마지막까지 세계 1위 선수로 남게 됐다.

'골프 여제'로 군림하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시코)의 은퇴 이후 신지애는 1위 자리를 16주간 지켜 경쟁자인 미야자토 아이(일본·11주), 크리스티 커(미국·5주)를 앞섰다.

2006년 여자골프 세계 순위가 처음 정해진 이후 시즌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계 1위를 지킨 것은 2006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초아에 이어 신지애가 세 번째다. /연합뉴스

“부상 악몽 털어야죠”...재기 몸부림

■ KIA 재활군 겨울나기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 7일 오후 옷깃을 파고드는 '대설(大雪) 바람'을 뚫고 13명의 KIA팬들이 국립광주박목관 뒷산에 집결했다. 연습장소인 무등경기장과 가까운데다, 야트막하지만 경사도가 만만치 않은 산세 덕분에 재활을 위한 최적의 산행 장소로 낙점된 것이다.

등반대장격인 장세홍 트레이너가 앞장을 섰고 안치홍, 김원섭, 한기주 등 부상에서 회복중인 호랑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뒤따랐다.

산행으로 하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분하게 올 시즌을 돌아보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일석이조의 훈련코스였다.

KIA는 지난달 21일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

이용규·한기주·안치홍 등 13명 내년시즌 기약

대설 한파에도 산 오르내리며 체력 강화 훈련

프를 꾸리고 마무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부상으로 캠프를 밟지 못한 이들은 재활군에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한기주와 어깨 수술로 회복중인 내야수 안치홍, 좌측 어깨와 무릎이 좋지 않은 김원섭과 채종범이 재활군에서 몸을 만들고 있고, 2011년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투수 한승혁도 팔꿈치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일본 캠프에 이틀을 율렀던 투수 안영범과 김희걸도 오른쪽 통증과 늑골 미세골절

로 광주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외야수 이용규와 신종길이 가세하면서 재활 멤버들은 더욱 화려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규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재활군에 합류, 2011 시즌을 향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측 어깨 통증으로 5일 밤 미야자키에서 귀국한 신종길도 7일 재활군이 됐다.

주력선수들이 대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겨울나기가 내년 KIA 전력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IA 재활군은 이날 매곡동 국립 광주박목

관 뒤에서 일곡동 고리고까지 이어지는 왕복 4km의 등반로를 훈련지로 선택했다. 부상방지를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선수들은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산행에 나섰다.

중도에 발길을 돌린 이용규를 제외하고는 이성우·한기주 배터리조가 가장 먼저 하산했다.

가장 먼저 달려 올라갔던 '폭풍질주' 신종길은 김원섭·채종범과 외야수조를 이뤄 그 뒤를 이었다. 신인 한승혁과 정상교에 이어 투수 안영범·김희걸이 출발선에 되돌아 왔고, 안치홍은 가장 늦게 산행훈련을 마무리했다.

KIA 재활군은 8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무등경기장이구장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함평 전용 연습구장 건립 순조

12월 팬 대상 연습장 투어

KIA 타이거즈가 5월 완공을 목표로 함평군 학교면 전용 연습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착공한 KIA 전용 연습구장의 전체 공정률은 현재 25%로, 토목공사(공정률 70%)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건립되는 연습구장은 7만9339㎡(2만4000평) 부지에 주경기장 1면과 내야 연습장, 실내 연습장 각 1면씩을 갖추게 되며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의 속소동으로 구성된다.

주경기장은 좌우 펜스까지 100m, 중

앙 펜스는 120m 규모다. 내야 연습장은 가로와 세로가 각 70m이며 실내 연습장은 가로와 세로가 50m, 높이 15m다.

속소동에는 20개의 객실과 라커룸, 식당, 휴게실, 샤워실, 헬스장, 의무실 등이 들어선다.

한편 KIA는 60명의 팬을 대상으로 12월 함평 연습구장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팬은 8일까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된다. 참관단은 이날 함평 연습구장을 비롯해 무등경기장과 그동안 2군이 경기를 치렀던 함평 전야구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넥센 또 현금장사? ... 스토브리그 화약고

잠재된 '화약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추가 트레이드설이 스토브리그 초반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현재 야구계에서는 '세이브왕' 손승락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주가가 폭등한 거포 내야수 김정호를 넥센이 다른 구단에 팔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간다.

정작 넥센 구단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제의도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음에도 여전히 트레이드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올해 시즌 종료 때까지 넥센은 추가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한시적인 조치가 시즌 종료와 함께 효력을 다하면서 넥센이 선수 장사를 다시 시작할지, 그렇다면 KBO가 어떻게 제동을 걸지를 놓고 야구팬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넥센은 작년말 투수 장원삼·이현승, 타자 이택근을 각각 삼성과 두산, LG에 넘기고 현금 55억원을 쟁겼다. 지난 7월에는 롯데에 내야수 황재균을 보내고 내야수 김민성과 투수 김수화를 받는 추가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KBO는 1차 대형 트레이드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현금이 긴 트레이드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올해 트레이드가 터지자 유영구 KBO 총재는 직권으로 승인을 유보한 뒤 사흘간 진상 파악에 나섰고 "현찰이 오가지 않았다"는 공문을 양 구단으로부터 받고서야 트레이드를 인정했다.

KBO는 14일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 봅슬레이 또 한번의 기적을...

다시 한번 클러빙 신화에 도전하는 한국 봅슬레이의 대표 주자 강광배(앞)와 서영우가 7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 시티에서 열린 봅슬레이 월드컵 남자부 경기에 앞서 연습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